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박 영 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김 의 철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인간관계 신뢰의식에서의 토착심리를 규명하고, 이러한 신뢰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 중 고 대학생의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주위사람과 기관에 대한 신뢰, 일반적 신뢰의식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남녀 청소년 968명이었다(초 227, 중 284, 고 213, 대 244). 인간관계 신뢰 변인을 측정하는 질문지는 신뢰에 대한 토착심리분석 결과에 토대하여 연구자가 제작(박영신, 김의철, 2005c)했으며, 일반적 신뢰의식은 Yamagishi (1998)의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 대한 신뢰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인은 부모의 희생에 대한 지각이었으며, 그 다음은 지도 조인, 의지함, 혈연관계, 존경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였다. 교사에 대한 신뢰는 지도 조인, 존경함, 희생, 믿어줌이 중요하였으며, 이외에도 의지함과 스승제자관계가 포함되었다. 친구에 대한 신뢰에서는 조인, 공감, 믿어줌, 의지함, 친구관계, 희생이 중요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동안 부모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고 중학생 이후부터 낮아졌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고 중학생 시기에 낮아지나,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증가하였다가 대학생 시기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친구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교 이후에 성장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셋째, 주위사람과 기관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으며, 정치가나 정당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았다. 친구에 대한 신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가족, 교사, 이웃, 기업가, 정치가)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대학생 시기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Yamagishi에 의해 제안된 일반적 신뢰의식은 초등학교이나 중학생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높았다. 따라서 일반적 신뢰의식의 변화 패턴은 한국 청소년의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다양한 변화 패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인간관계 신뢰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이해의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주요어 : 청소년기 신뢰의식, 인간관계 신뢰, 토착심리, 부모신뢰, 교사신뢰, 친구신뢰, 희생, 존경, 공감

* 이 논문은 2006년도 인하대학교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yspark@inha.ac.kr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문화에서의 신뢰

오래 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국회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라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 있으면 됩니다”라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즉 일반인은 열람과 복사만 되지만,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출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효율적이고 편하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부당하고 통제가 어려운 물밑 흐름이다. 한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 있으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만약 서양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아무리 한국어를 잘 해도 근본적인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가? 그것은 표현 그대로 단순히 그 사람을 아는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아는 관계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일에서의 성패가 결정되는 데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신뢰하는 인간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면, 부탁을 했을 때 웬만한 공식적인 규정이나 절차를 뛰어넘는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고 심지어 막강한 후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조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아는 사람 봐 주기’는, 내집단 구성원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미 있고 고맙고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으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발휘하는 멋진 역량이다. 그러나 외집단으로 분류되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때로는 투명성까지도 없으며 그래서 전혀 믿을 수 없는 지도자의 부정

부패한 썩은 모습이다.

‘아는 사람을 봐 주며’,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한국 사회가 점차 성숙하면서 겉으로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일을 처리할 때 그러한 잠재 논리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을 신뢰하는 인간관계중심적인 문화를 갖고 있으며, 아무리 우리 사회의 표면적인 현상들이 변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가치나 정신에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문화는 신뢰의 형성, 신뢰의 유지, 신뢰의 강도, 신뢰의 확산 등 신뢰와 관련된 측면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역동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유교문화권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 문화 특성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관계문화를 신뢰의 개념과 흥미롭게 연결을 시킨 Yamagishi(1998)는 집단주의 사회가 사람들에게 안심(assurance)을 제공하지만 신뢰(trust)를 파괴한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집단주의를 “구성원들이 집단 내부에서 상호 협력하는 정도가 집단 간에 협력하는 정도보다 강한, 즉 내집단 편애 정도가 강한 사회”로 정의하였다. 집단 내부에서 속거나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집단주의 사회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일본 사회는 이와 같이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고 내부에서 안심하고 협력하는 방식의 집단주의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미래에는 폐쇄적 관계보다 개방적 관계가 더 효율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폐쇄적 집단주의식 안심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기회를

중요시여기는 개방형 사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특정 집단이나 관계의 틀을 초월하는 일반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국 문화를 고려한 신뢰의식 측정의 방향과 내용

Yamagishi(199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이 속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특정 상대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고, 상대가 실제로 신뢰성 있는 행동을 할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였다. 이러한 일반적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Yamagishi는 하위변인을 일반적 신뢰와 조심성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신뢰(general trust)는 타인 일반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의식을 측정하며, 예컨대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들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조심성(cautions)은 타인 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신뢰의식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예컨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이 사회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 당한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2001).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신뢰의식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Yamagishi가 제안한 방식의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부분적인 설명은 해 줄 수 있으나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가 서양 사회에서처럼 합리성을 우선하기보다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문화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미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관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모든 일들이 쉽게 진행될 수 있지만, 전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의 기획을 설득하거나, 일 자체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신뢰를 얻기는 훨씬 소모적 노력을 필요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평가 절하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안 친척이라든가 학교의 동창관계라든가 고향 사람 등과 같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는 고려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이러한 많은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공적 사회생활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양한 조직이나 집단의 역동을 보면 그 기저에 인간관계라는 변수가 영향력 있게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관계 변인을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대한 심층 이해과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러므로 Yamagishi가 제안한 일반적인 신뢰의식만이 아니라 첫째로 관계의 대상, 즉 어떠한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인가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류가 필요하다. 관계의 대상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상대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고, 의사소통방식 뿐만 아니라 수용될 수 있는 행동표출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계의 대상에 따라 신뢰의 역동과정이 질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예컨대 청소년의 신뢰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타인인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신뢰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청소년 신뢰의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로 한국인의 토착적 신뢰의식 탐구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 즉 각 인간관계 대상에 대한 신뢰 형성과 지속에 작용하는 토착심리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이는 한국인의 인간관계 신뢰의식을 구성하는 토착심리적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연결된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와 불신의 기반에 대한 이해(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김양하, 2005)가 중요하다는 지적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식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관심을 다루고 있는 일련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간략히 요약하기로 한다.

한국인의 토착적 신뢰의식 탐구의 필요성 인식에 토대한 일련의 시도들

북유럽 지역(덴마크, 스웨덴)과 동아시아(한국, 일본)에서의 신뢰의식을 비교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2005) 결과에 의하면, 두 지역의 응답자들 모두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가까운 내집단 구성원을 신뢰하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그러나 북유럽 응답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 응답자들은 동료나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낮았으며, 정치 조직이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의식은 서양인들의 신뢰의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편적인 인간에게 적용되는 신뢰의 개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독특하게 형성하고 있는 토착적인 신뢰의식에 대한 관심이 한국 사

회 내에서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한성열(2005)은 한국 사회의 신뢰와 불신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앞으로 한국 문화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한 토착심리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c, 2006)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토착적인 신뢰의식을 분석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c)은 Lee, Park과 Kim(2002)의 연구 결과를 재분석하여,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확인된 토착적 신뢰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부모의 희생과 자녀의 순종이 신뢰 형성에서 핵심 요인이었으며, 혈연관계가 무조건적 신뢰를 유발하는 기반이 되고 있고, 부모는 존경을 받는 것이 그리고 자녀는 학업에 충실한 것이 신뢰형성에서 중요하였다. 또한 능력보다는 성실이나 정직과 같은 도덕성이 신뢰형성에서 핵심 역할을 하였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a)은 박영신과 김의철(2004c)의 연구를 확대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뢰의식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신뢰의식만이 아니라, 두 집단 각각에게 의미있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를 검토하였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신뢰의 이유를, 부모를 대상으로는 자녀, 배우자, 교사에 대한 신뢰의 이유를 통해 토착심리를 규명하였다. 자유반응형 질문의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청소년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부모의 '희생'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혈연관계'가 부각되었으며, 이외에 '존경함' '나를 믿어줌' '의지가 됨' '지도와 조언'이 포함되었다.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학업 지도'와 '스승에 대한 무조건 신뢰'가 대표적인 이유였으며, 아껴주고

관심이 있음' '존경함' '상당과 인정지도' 부모와 같은 존재' '학생들을 위한 고생과 희생'이 포함되었다. 친구 신뢰의 이유들 즉 의지가 됨' '친밀함' '친구에 대한 무조건 신뢰' '나를 이해함'의 결과를 통해,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로 '성실함'과 '정직함'과 같은 도덕성의 측면이 강조되었고, '혈연관계' 자녀에 대한 기대와 대화' '순종함' '학업에 충실'이 신뢰의 이유로 나타났다. 배우자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성실함' '가족을 위한 헌신' '정직함' '배우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 대화와 상호 배려'의 순서로 지적되었다.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교육자에 대한 무조건 신뢰' '학생 이해와 사랑' '성실함'이 중요했다.

개인에게 의미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의식을 검토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2004b) 결과가 있다. 한국 사회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3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가능성' '한국인의 인간미' '한국인의 노력'이 지적되었다. 한국에 대한 불신 이유로는 '정치인 불신'(30.3%) '부정부패/비리'(22.7%)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이외에 '공공기관 불신' '경제적 불안'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한국 사회를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심리의 기반으로서 관계지향 문화와 도덕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능력보다 도덕성을 중시한다는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4c)와도 일관성이 있었다.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박영신과 김의철(2005b)은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

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관계문화의 뿌리에 대한 발견으로서, 신뢰형성에서 우리 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둘째로는 정서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정서적 유대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셋째로는 능력보다는 도덕성의 강조로서, 끊임없이 자기를 수양하는 인격자에 대한 신뢰와 관계 내에서 역할에 충실한 것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한편 한국인이 다른 사람과 다양한 집단 및 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분석(박영신, 김의철, 2005b)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중에서 특히 가족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친구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그러나 공무원과 정치가에 대해서는 불신했으며, 특히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 한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는 모두 낮았는데, 특히 국회나 정당처럼 정치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다. 세대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족, 교사/친구,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았고, 성인이 청소년보다 국회/정당, 노조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상에서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 토착심리를 규명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신뢰의식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각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소년 발달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로 인간의 보편적인 발달에 초점을 두고 발달심리학 이론이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문화와 토착심리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생각해 볼 때, 이제는 발

달심리학도 인류 보편적인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다른 발달적 콘텐츠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Erikson은 기본적인 신뢰 대 불신이라는 심리사회적 발달의 보편적 단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발달단계로서의 신뢰보다는 한국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맥락과 더불어 신뢰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예컨대 부모가 희생하는 모습을 지각할 때 부모에 대한 신뢰의식을 형성하는 한국 청소년의 마음(박영신, 김의철, 2004c)이 청소년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한국 청소년들이 갖는 매우 고유한 심리적 특성이며 이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발달심리의 이론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토착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발달의 문제에서도 토착심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중요하다. '철이 든다'는 한국인 발달과정에서의 토착적 개념이 기존의 보편적인 발달심리학 이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 청소년 발달의 문제를 다룰 때 고려될 가치가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4b).

Kim과 Park(2006)은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와 관련하여 유교철학을 기초로 그림 1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유교철학에 의하면 사람은 어진 마음(仁)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인간의 자기 발달과정에서 가장 첫 단계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점차 성장해 가면서 개인이 인간관계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위치에서 개인이 해야 하는 역할이 규정된다. 자신의 위치에서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바르고 옳은 것(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미줄처럼 얽힌 상호관계 속에서 개인의 위치와 역할에 적

합한 예의를 갖추어 나가는 것(禮)이 중요하다. 이러한 어진 성품과 올바른 역할수행과 예의를 알고 행해 나가는 것을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품성을 기르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맡은 중요한 교육적 역할이다. 아동이 성장하여 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智)하게 된다. 서양문화에서는 합리성과 이성을 통해 지식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유교문화에서는 어질고 옳으며 예의를 갖추는 것과 같은 인격적인 품성을 우선 형성한 뒤에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信). 이러한 다섯 가지의 심리적 특성은 아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개발해야 하는 필수적인 가치로 유교문화에서 인식된다. 이와같이 유교문화에서 인간관계 맥락의 신뢰가 사회생활의 토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덕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뢰의 형성은 어질고 올바르게 예의있고 참된 것을 아는 것에 토대하여 이루어지는 매우 고차적인 정신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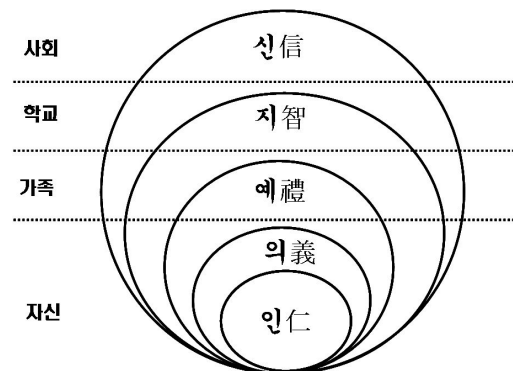


그림 1. 발달단계의 맥락에서 본 신뢰의 형성: 유교적 모형

시아 사람들의 신뢰형성이 서양인들의 신뢰형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토착심리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발달심리와 관련된 주제 중에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신뢰의식을 구성하는 구인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뢰의식 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토착심리가 청소년기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 사람들의 토착심리를 규명해 나가려는 큰 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의 토착심리 중에서도 특별히 토착적인 신뢰의식의 탐구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다. 즉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뢰의식의 토착적 속성을 밝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일련의 연구 흐름 속에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 범위를 한국 청소년으로 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토착적인 신뢰의식이 청소년의 다양한 인간관계 맥락에서 어떻게 구성되며 나아가서 청소년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구체적인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한국 청소년의 토착적인 신뢰의식을 측정하는 양적인 도구를 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정도구의 제작을 위한 개념적 기초는 김의철과 박영신(2004a)의 연구결과에 토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토착적 신뢰의식의 구인들을 이 연구에서 측정변인으로 하여 문항들을 제작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 초기의 초등학생에서부터 청소년 중기의

중 고등학생 및 청소년 후기 또는 청년 시기로 접어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신뢰 의식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 청소년 토착적 신뢰의식에 대한 발달적 분석은 청소년기 동안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의 토착적 발달심리를 탐색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박영신과 김의철(2005b)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신뢰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으나, 그 연구에서는 신뢰하는 정도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응답한 척도 상의 점수를 비교하는 수준에 그쳤었기 때문에, 신뢰의식과 신뢰의 정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신뢰의 하위변인들, 즉 신뢰의 토착심리를 구성하는 각 요인별 신뢰 수준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새로이 제작된 토착 신뢰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기초로 한국 청소년의 신뢰의식을 분석하는 동시에, 기존에 Yamagishi에 의해 제작된 일반적 신뢰의식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데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신뢰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청소년 집단별 신뢰의식의 차이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뢰의식만 살펴보아서는 평면적인 이해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집단별 신뢰의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기에 중요한 심리적 변인들을 더불어 분석하고자 한다. 예컨대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여, 이러한 심리 변인들이 청소년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신뢰의식의 변화에 대한 역동적 이해와 해석의 폭을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968명이었다. 초등학교 227명, 중학생 284명, 고등학교 213명, 대학생 244명으로서 각 집단에 남녀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각 하위집단의 평균 연령은 11.7세, 13.6세, 16.4세, 21.1세였다. 대학생 집단 경우 전공계열별로는 문과대(22.2%) 공과대(21.8%) 사범대(20.6%) 이과대(18.9%)가 각각 20% 전후로 분포하였다. 이외에도 법과대(4.9%) 사회과학대(3.7%) 의과대(2.9%) 생활과학대(2.9%) 경상대(2.1%) 등 다양한 전공이 고루 포함되었다. 그리고 전체 집단의 평균 학업성적 수준은 상 중 하 각각 16.9% 29.4% 12.5%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학업성적이 정상분포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도구

이 연구의 질문지에서 다루는 변인과 문항 구성 및 Cronbach 신뢰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5c)은 신뢰 변인에 대한 측정을 위해 크게 네 가지 하위변인을 포함했다. 첫째,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하위 변인들과 하위 문항들은 김

의철과 박영신(2004a)의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 청소년과 부모의 신뢰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확정하였다. 그 중에서 부모에 대한 신뢰는 희생, 혈연관계, 의지함, 존경함, 나를 믿어줌, 지도 조언을 하위변인으로 포함하였으며, $\alpha=.83 \sim .87$ 의 값을 나타내었다. 친구에 대한 신뢰는 희생, 친구관계, 의지함, 공감, 나를 믿어줌, 지도 조언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alpha=.83 \sim .90$ 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교사에 대한 신뢰는 희생, 스승제자관계, 의지함, 존경함, 나를 믿어줌, 지도 조언으로 하위변인이 구성되었고, $\alpha=.88 \sim .90$ 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일반적 신뢰의식은 Yamagishi(1998)의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일반적 신뢰와 조심성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하위변인 일반적 신뢰만 5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나머지 모든 하위변인들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에는 신뢰와 관련된 변인들 외에도 몇 가지 변인들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지원은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하여 사용한 질문지 중에서 부모집단의 경제적 지원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그대로 활용했으며, 정서적인 측면과 정보적 측면의 문항내용을 12문항씩 포함하였다.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원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alpha=.92 \sim .93$ 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개인효능감의 측정은 5개의 하위변인으로

표 1. 분석대상

성별 \ 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남자	369	99	135	50	85
여자	599	128	149	163	159
전체	968	227	284	213	244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변인	하위변인	문 항	α
부모 신뢰	희생	1 7 13 19 25 31	.83
	혈연관계	2 8 14 20 26 32	.83
	의지함	3 9 15 21 27 33	.86
	존경함	4 10 16 22 28 34	.83
	나를 믿어줌	5 11 17 23 29 35	.87
	지도 조언	6 12 18 24 30 36	.84
교사 신뢰	희생	1 7 13 19 25 31	.90
	스승제자관계	2 8 14 20 26 32	.89
	의지함	3 9 15 21 27 33	.90
	존경함	4 10 16 22 28 34	.89
	나를 믿어줌	5 11 17 23 29 35	.91
	지도 조언	6 12 18 24 30 36	.88
친구 신뢰	희생	1 7 13 19 25 31	.90
	친구관계	2 8 14 20 26 32	.84
	의지함	3 9 15 21 27 33	.83
	공감	4 10 16 22 28 34	.84
	나를 믿어줌	5 11 17 23 29 35	.85
	조언	6 12 18 24 30 36	.88
일반적 신뢰의식	일반적 신뢰	1 2 4 5 8	.79
	조심성	3 6 7 9 10 11	.74
사회적 지원	부모의 사회적 지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92
	교사의 사회적 지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93
	친구의 사회적 지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92
개인효능감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1 6 11 16 21 26	.81
	어려움극복 효능감	2 7 12 17 22 27	.86
	사회성 효능감	3 8 13 18 23 28	.86
	관계 효능감	4 9 14 19 24 29	.73
	부모자녀관계 효능감	5 10 15 20 25 30 31	.85
집단효능감	가족역할수행 효능감	1 5 9 13 17 21	.85
	학생역할수행 효능감	2 6 10 14 18 22	.79
	가족집단성취 효능감	3 7 11 15 19 23	.85
	학급집단성취 효능감	4 8 12 16 20 24	.94
생활만족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86

구성되었는데, 부모자녀관계 효능감이 6개 문항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변인 중에서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과 어려움 극복 효능감은 Bandura(1995)가 제작한 것으로서, 김의철과 박영신(1997)이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사회성 효능감과 관계 효능감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작되어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 처음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다. 부모자녀관계 효능감은 연구자들이 제작하여 박영신, 김의철과 정갑순(2004)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을 활용하였다. 개인효능감 하위변인들의 신뢰도는 $\alpha=.73 \sim .86$ 로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집단효능감 개념의 필요성(Bandura, 1997)을 인식하고 이 연구에서 집단효능감 측정도구의 제작을 시도하였다. 집단효능감의 하위변인은 가족역할수행 효능감, 학생역할수행 효능감, 가족집단성취 효능감, 학급집단성취 효능감의 4가지를 구성하였다. 하위변인은 각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alpha=.79 \sim .94$ 로 양호하였다.

실시 방법

학생용 질문지는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 아래 실시되었으며, 부모용 질문지는 학생들이 집에서 실시한 질문지를 담임교사가 수거하였다. 질문지 실시에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 과

청소년 집단별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토착적 신뢰의식의 차이

청소년 집단별 부모나 교사 및 친구에 대한 신뢰의식의 토착심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반적으로 볼 때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며, 학교수준별로는 $p<.001$ 수준에서 성별로는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하위변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수준별 주효과를 살펴보면 희생에서만 $p<.01$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5개의 하위변인 모두에서 $p<.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 주효과를 보면 혈연관계 존경함 나를 믿어줌과 같은 3하위 변인에서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의지함과 지도 조언에서는 $p<.05$ 수준의 차이를 보였고, 희생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4는 학교수준별 성별 부모에 대한 신뢰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후검증 방법으로 Scheffe test 결과와 함께 제시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학교수준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 고 대학생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에 부모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고, 중학생 시기가 되면 초등학교 때보다 신뢰정도가 낮아지고, 이렇게 중학교 시간에 낮아진 신뢰수준이 대학교 시기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부모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았다.

하위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학교수준별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후검증 결과 희생과 지도 조언 경우에 초등학교의 평균이

표 3. 학교수준별 성별 부모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df	MS	F
희생	주효과 학교수준(1)	3	.65	4.68 **
	성별 (2)	1	.16	1.18
	상호작용 (1)×(2)	3	.08	.57
혈연관계	주효과 학교수준(1)	3	2.50	10.76 ***
	성별 (2)	1	1.64	7.05 **
	상호작용 (1)×(2)	3	.11	.47
의지함	주효과 학교수준(1)	3	5.29	23.17 ***
	성별 (2)	1	1.26	5.53 *
	상호작용 (1)×(2)	3	.29	1.26
존경함	주효과 학교수준(1)	3	3.27	15.86 ***
	성별 (2)	1	1.74	8.45 **
	상호작용 (1)×(2)	3	.30	1.46
나를 믿어줌	주효과 학교수준(1)	3	4.47	14.25 ***
	성별 (2)	1	3.73	11.87 **
	상호작용 (1)×(2)	3	.78	2.49
지도 조언	주효과 학교수준(1)	3	5.19	24.61 ***
	성별 (2)	1	1.29	6.12 *
	상호작용 (1)×(2)	3	.37	1.75
전체	주효과 학교수준(1)	3	3.04	20.09 ***
	성별 (2)	1	1.44	9.50 **
	상호작용 (1)×(2)	3	.26	1.73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학교수준별 성별 부모에 대한 신뢰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¹⁾

구분 변인	전체 M (SD)	초 M (SD)	중 M (SD)	고 M (SD)	대 M (SD)	남 M (SD)	여 M (SD)
희생	3.75 (.37)	3.82 (.30) ^b	3.74 (.36) ^{ab}	3.76 (.38) ^{ab}	3.69 (.44) ^a	3.76 (.38)	3.74 (.37)
혈연관계	3.55 (.49)	3.71 (.39) ^b	3.47 (.48) ^a	3.52 (.50) ^a	3.53 (.55) ^a	3.60 (.47)	3.52 (.50)
의지함	3.56 (.50)	3.81 (.30) ^b	3.52 (.47) ^a	3.47 (.55) ^a	3.47 (.54) ^a	3.62 (.47)	3.53 (.51)
존경함	3.50 (.47)	3.69 (.36) ^b	3.45 (.48) ^a	3.47 (.47) ^a	3.42 (.49) ^a	3.56 (.44)	3.47 (.48)
나를 믿어줌	3.39 (.58)	3.63 (.45) ^b	3.33 (.61) ^a	3.28 (.64) ^a	3.34 (.54) ^a	3.48 (.54)	3.34 (.59)
지도조언	3.57 (.48)	3.79 (.32) ^b	3.57 (.46) ^{ab}	3.53 (.50) ^{ab}	3.42 (.54) ^a	3.63 (.44)	3.54 (.50)
전체	3.56 (.40)	3.74 (.28) ^b	3.51 (.40) ^a	3.50 (.43) ^a	3.48 (.43) ^a	3.61 (.38)	3.52 (.41)

1) 표 4, 표 6, 표 8, 표 10, 표 12, 표 14, 표 16, 표 18, 표 20에서 ^a, ^b, ^c 는 Scheffe 검증 결과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동질적인 집단으로서 평균이 낮아지고, 대학생은 더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 외의 모든 하위변인들 즉 혈연관계, 의지함, 존경함, 나를 믿어줌에서는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모두 동질적인 집단으로서 초등학생보다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학교수준별로 초등학생이 가장 부모가 회생을 많이 하고, 혈연관계에 있으며, 의지할 수 있고, 존경하며, 나를 믿어주고, 지도조언을 해 줌으로써 부모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른 청소년 집단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아지며, 중학생 시기에 이렇게 낮아진 부모에 대한 신뢰의식은 고등학생을 거쳐 대학생 단계가 되었을 때 까지 거의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도 모든 하위변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높았다.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의 혈연관계를 더욱 의식하고 부모를 더욱 존경하며 부모가 자신을 더욱 믿어준다고 생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았다.

각 하위변인에 대한 평균을 보면, 회생이 월등하게 높고, 그 다음으로 지도조언, 의지함, 혈연관계, 존경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회생한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부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됨을 참고로 알 수 있다.

표 5는 학교수준별 성별 교사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

효과가 $p < .001$ 수준에서 있었으며, 각각의 주효과도 $p < .001$ 수준에서 동일하였다. 하위변인별로는 네 변인 즉 회생, 스승제자관계, 존경, 지도 조언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고($p < .001$), 의지는 $p < .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믿음은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하위변인 회생을 보면 남자 평균은 초 3.49, 중 3.00, 고 3.54 대 2.73로 나타났고 여자 평균은 초 3.59, 중 3.09, 고 3.09, 대 2.53으로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씩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다가, 고등학생 시기에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대학생 시기는 고등학생에서만 큼 성별 차이가 큰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남자의 평균이 더 높았다. 즉 초·중학생 시기까지는 여자가 선생님을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등학생 시기가 되면 여자는 중학생 시기와 비슷하거나 미미하게 약간 더 높은 신뢰를 보였다. 반면에 남자는 현저하게 선생님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고 비록 대학생 시기에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고등학생 시기보다 낮아지나, 여자보다는 더욱 높은 신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상호작용이 있는 모든 하위변인들에서 동일하였다.

학교수준별 주효과를 보면 모든 하위변인들, 즉 회생, 스승제자관계, 의지, 존경, 믿음, 지도 조언에서 모두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은 학교수준별 성별 교사에 대한 신뢰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등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등학생이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고,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평균값이 가장 낮다. 이러한 사실은 초등학생 시기에 교사에 대한 신뢰 정도가 가장 높으며, 중학생 때 조금 하락했다가, 고등학생

표 5. 학교수준별 성별 교사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df	MS	F	
희생	주효과 학교수준 (1)	3	33.34	106.72	***
	성별(2)	1	2.71	8.68	**
	상호작용 (1)×(2)	3	3.28	10.50	***
스승제자관계	주효과 학교수준 (1)	3	32.41	81.70	***
	성별(2)	1	7.58	19.11	***
	상호작용 (1)×(2)	3	2.48	6.26	***
의지	주효과 학교수준 (1)	3	33.43	88.62	***
	성별(2)	1	3.63	9.62	***
	상호작용 (1)×(2)	3	1.82	4.81	**
존경	주효과 학교수준 (1)	3	37.03	137.63	***
	성별(2)	1	.29	1.09	
	상호작용 (1)×(2)	3	2.34	8.70	***
믿음	주효과 학교수준 (1)	3	28.88	78.81	***
	성별(2)	1	.23	.619	
	상호작용 (1)×(2)	3	.64	1.76	
지도 조언	주효과 학교수준 (1)	3	22.54	79.10	***
	성별(2)	1	.56	1.97	
	상호작용 (1)×(2)	3	1.75	6.13	***
전체	주효과 학교수준 (1)	3	30.48	118.63	***
	성별(2)	1	1.81	7.05	***
	상호작용 (1)×(2)	3	1.89	7.34	***

** $p < .01$, *** $p < .001$

표 6. 학교수준별 성별 교사에 대한 신뢰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변인	전체	초	중	고	대	남	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희생	3.08 (.66)	3.55 (.49) ^d	3.05 (.63) ^b	3.19 (.60) ^c	2.60 (.53) ^a	3.14 (.68)	3.05 (.65)
스승제자관계	2.76 (.72)	3.28 (.60) ^d	2.61 (.66) ^b	2.85 (.69) ^c	2.38 (.60) ^a	2.86 (.73)	2.70 (.70)
의지함	2.83 (.70)	3.37 (.55) ^d	2.67 (.68) ^b	2.88 (.65) ^c	2.46 (.58) ^a	2.90 (.72)	2.78 (.69)
존경함	3.20 (.63)	3.71 (.40) ^d	3.15 (.59) ^b	3.28 (.54) ^c	2.70 (.53) ^a	3.22 (.65)	3.18 (.62)
나를 믿어줌	3.01 (.68)	3.47 (.56) ^d	2.84 (.70) ^b	3.14 (.58) ^c	2.66 (.55) ^a	3.02 (.70)	3.00 (.66)
지도 조언	3.26 (.60)	3.62 (.42) ^d	3.17 (.63) ^b	3.42 (.56) ^c	2.90 (.50) ^a	3.27 (.61)	3.26 (.59)
전체	3.02 (.60)	3.50 (.44) ^d	2.91 (.57) ^b	3.13 (.53) ^c	2.62 (.49) ^a	3.07 (.62)	2.99 (.59)

이 되면 다시 교사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여 중학생 시기보다 높은 값을 보이지만, 대학생 시기에는 다시 현저하게 교사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Scheffe 검증 결과는 초 중 고 대학生の 4집단 모두 매우 이질적인 각각의 독립된 신뢰수준을 갖는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표 5에서 성별 주효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p < .001$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변인별로 볼 때 2 변인 즉 스승제자관계와 의지에서 $p < .001$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또한 회생에서도 $p < .01$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세 변인 즉 존경, 믿음, 지도 조언에서는 $p < .05$ 수준의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6에서 성별 평균값의 차이를 보면, 전체 평균이나, 스승제자관계, 의지함, 회생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선생님을 신뢰하며, 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점에서 신뢰하고, 그리고 선생님을 더욱 의지하며, 선생님의 회생을 더욱 인식하는 점에서 신뢰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집단의 하위변인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지도 조언이 가장 높고 존경함이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회생, 나를 믿어줌의 순서를 보였다. 그러므로 한국 청소년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의식은 선생님으로부터 지도 조언을 받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더불어 선생님이 회생적이고 나를 믿어준다고 인식할 때 신뢰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수준별 성별 친구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호작용효과는 없고, 주효과의 경우에 학교수준별 효과는 $p <$

.001 수준으로 유의하였으나, 성별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8은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인데, 전체 반응경향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평균값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에서 평균이 증가하고 고등학교 때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가 대학생 시기에는 고등학교 때보다 평균이 낮으나, 그래도 대학생이 중학생보다는 약간 높은 평균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동안에 고등학교 시기가 가장 친구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점차 친구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였다.

표 7에서 친구에 대한 신뢰 하위변인별 분석 결과를 보면, 공감에서 상호작용효과가 $p < .05$ 수준에서 나타났고 다른 하위변인들에서는 전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공감 하위변인에서의 하위집단별 평균값을 보면, 남자 초등학교생 3.25 중학생 3.44 고등학교생 3.54 대학생 3.55였고, 여자 초등학교생 3.43 중학생 3.55 고등학교생 3.63 대학생 3.44였다. 이러한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는 친구들 간에 서로 공감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정도의 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더 높았으나, 대학생 시기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역전이 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친구 사이에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정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

표 7의 학교수준별 주효과를 보면, 하위변인 의지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없고, 그 외 모든 변인에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8에서 학교수준별 평균값들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때 친구에 대한 신뢰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다가, 중학생에서 평균이 증가하고, 고등

표 7. 학교수준별 성별 친구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df	MS	F
희생	주효과 학교수준 (1)	3	8.99	18.63 ***
	성별 (2)	1	2.33	4.82 *
	상호작용 (1)×(2)	3	.45	.94
친구관계	주효과 학교수준 (1)	3	7.48	19.96 ***
	성별 (2)	1	.02	.05
	상호작용 (1)×(2)	3	.65	1.73
의지함	주효과 학교수준 (1)	3	4.88	14.40 ***
	성별 (2)	1	.04	.11
	상호작용 (1)×(2)	3	.68	2.02
공감	주효과 학교수준 (1)	3	1.98	7.24 ***
	성별 (2)	1	1.03	3.76
	상호작용 (1)×(2)	3	.85	3.11 *
나를 믿어줌	주효과 학교수준 (1)	3	2.18	6.78 ***
	성별 (2)	1	.22	.69
	상호작용 (1)×(2)	3	.41	1.26
조언	주효과 학교수준 (1)	3	5.19	24.61 ***
	성별 (2)	1	1.29	6.12 *
	상호작용 (1)×(2)	3	.37	1.75
전체	주효과 학교수준 (1)	3	2.19	10.29 ***
	성별 (2)	1	.04	.16
	상호작용 (1)×(2)	3	.37	1.74

* $p < .05$, *** $p < .001$

표 8. 학교수준별 성별 친구에 대한 신뢰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변인	전체	초 중 고 대				남 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희생	2.71 (.71)	2.46 (.83) ^a	2.68 (.73) ^b	2.89 (.63) ^c	2.83 (.57) ^{bc}	2.75 (.75)	2.69 (.69)
친구관계	3.12 (.63)	2.94 (.74) ^a	2.99 (.65) ^a	3.31 (.51) ^b	3.26 (.52) ^b	3.09 (.67)	3.13 (.61)
의지함	3.31 (.60)	3.12 (.71) ^a	3.26 (.61) ^{ab}	3.47 (.50) ^c	3.38 (.48) ^{bc}	3.28 (.62)	3.32 (.58)
공감	3.48 (.53)	3.35 (.65) ^a	3.50 (.53) ^b	3.61 (.45) ^b	3.48 (.45) ^{ab}	3.43 (.57)	3.52 (.50)
나를 믿어줌	3.33 (.57)	3.21 (.69) ^a	3.28 (.58) ^{ab}	3.46 (.50) ^c	3.37 (.47) ^{bc}	3.29 (.60)	3.35 (.56)
조언	3.57 (.48)	3.79 (.32) ^c	3.57 (.46) ^b	3.53 (.50) ^{ab}	3.42 (.54) ^a	3.63 (.44)	3.54 (.50)
전체	3.25 (.47)	3.15 (.55) ^a	3.21 (.48) ^{ab}	3.38 (.41) ^c	3.29 (.39) ^{bc}	3.24 (.50)	3.26 (.45)

학생 때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가, 대학생이 되면 평균이 약간 감소하는 그러한 공통된 패턴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청소년기에 친구에 대한 신뢰의식은 초등학생 시기에는 그리 높지 않으나 중 고등학생으로 성장함에 따라 친구에 대한 신뢰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대학생 시기에는 다시 약간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표 8에서 여러 하위집단들의 값을 합한 전체 평균을 하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조연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공감도 거의 비슷한 평균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나를 믿어줌, 의지함, 친구관계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청소년들의 친구에 대한 신뢰의식에 있어서의 토착심리는 친구들로부터 진심이 담긴 조언을 받고, 친구들과 상호 공감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친구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 때, 신뢰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집단별 주위사람과 기관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

표 9는 학교수준별 성별 주위 사람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16명에 대해 상호작용효과는 전혀 없었다. 학교수준별 결과를 보면, 조부모 삼촌 사촌 기타 친척 친구 선후배 담임선생님 아는 이웃 교육자 공무원 기업가 정치가의 경우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 친형제자매 학교동창은 $p < .01$ 수준의 차이를 보였고, 부모는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16명의 경우 모두 학교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표 10에서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학교수준별 집단 중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나, 단 친구와 선후배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평균값이 낮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과 같이 어릴수록 높은 신뢰를 하나, 친구와 선후배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보다는 대학생처럼 나이가 증가할수록 신뢰를 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차이를 보였다.

성별 주위사람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9 참고), 조부모 삼촌 사촌의 경우는 $p < .001$ 수준의 차이를 보였고 학교 동창과 아는 이웃의 경우는 $p < .01$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10에서 성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조부모 삼촌 사촌 학교 동창 및 아는 이웃 모두에서 남자 평균이 여자보다 높았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조부모와 삼촌 사촌 학교 동창 및 아는 이웃에 대해 더욱 신뢰함을 알 수 있다.

표 10에서 평균값들을 상호 비교해 보면 부모가 3.80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친구도 모두 매우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이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정치가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기업가도 매우 낮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이들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표 11은 학교수준별 성별 기관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학교수준별 성별 상호작용효과는 학원에 대한 신뢰에서만 있었다($p < .05$). 하위집단별 평균을 보면, 남자의 경우는 평균값이 초 2.95 중 2.76 고 2.74 대 2.34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평균이

표 9. 학교수준별 성별 주위사람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df	MS	F
부모	주효과 학교수준 (1)	3	.84	3.72 *
	성별 (2)	1	.67	2.98
	상호작용 (1)×(2)	3	.24	1.08
자녀	주효과 학교수준 (1)	3	2.27	5.75 **
	성별 (2)	1	.25	.62
	상호작용 (1)×(2)	3	.05	.13
형제자매	주효과 학교수준 (1)	3	1.99	4.38 **
	성별 (2)	1	.60	1.32
	상호작용 (1)×(2)	3	.70	1.54
조부모	주효과 학교수준 (1)	3	5.63	12.22 ***
	성별 (2)	1	8.24	17.90 ***
	상호작용 (1)×(2)	3	.40	.86
삼촌	주효과 학교수준 (1)	3	17.56	34.35 ***
	성별 (2)	1	14.21	27.80 ***
	상호작용 (1)×(2)	3	.26	.516
사촌	주효과 학교수준 (1)	3	10.16	19.12 ***
	성별 (2)	1	21.86	41.15 ***
	상호작용 (1)×(2)	3	.08	.15
기타 친척	주효과 학교수준 (1)	3	18.81	33.51 ***
	성별 (2)	1	16.54	29.48 ***
	상호작용 (1)×(2)	3	.63	1.13
친구	주효과 학교수준 (1)	3	1.81	4.04 ***
	성별 (2)	1	.83	1.86
	상호작용 (1)×(2)	3	.27	.60
선후배	주효과 학교수준 (1)	3	3.17	5.47 ***
	성별 (2)	1	.65	1.11
	상호작용 (1)×(2)	3	1.31	2.26
학교 동창	주효과 학교수준 (1)	3	2.69	5.11 **
	성별 (2)	1	5.20	9.87 **
	상호작용 (1)×(2)	3	.96	1.82
담임선생님	주효과 학교수준 (1)	3	19.75	46.63 ***
	성별 (2)	1	.51	1.21
	상호작용 (1)×(2)	3	.54	1.27
아는 이웃	주효과 학교수준 (1)	3	4.18	7.47 ***
	성별 (2)	1	5.20	9.27 **
	상호작용 (1)×(2)	3	.97	1.72
교육자	주효과 학교수준 (1)	3	4.66	7.34 ***
	성별 (2)	1	.01	.01
	상호작용 (1)×(2)	3	1.316	2.07
공무원	주효과 학교수준 (1)	3	32.04	42.65 ***
	성별 (2)	1	.37	.49
	상호작용 (1)×(2)	3	1.20	1.59
기업가	주효과 학교수준 (1)	3	16.06	22.53 ***
	성별 (2)	1	1.51	2.12
	상호작용 (1)×(2)	3	.50	.70
정치가	주효과 학교수준 (1)	3	64.09	78.90 ***
	성별 (2)	1	2.44	3.01
	상호작용 (1)×(2)	3	1.43	1.76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학교수준별 성별 주위사람에 대한 신뢰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변인	전 체 M (SD)	초 M (SD)	중 M (SD)	고 M (SD)	대 M (SD)	남 M (SD)	여 M (SD)
부모	3.80 (.48)	3.90 (.38) ^b	3.79 (.47) ^{ab}	3.71 (.55) ^a	3.80 (.50) ^{ab}	3.84 (.43)	3.78 (.50)
자녀	3.47 (.63)	3.63 (.66) ^b	3.42 (.62) ^a	3.43 (.65) ^a	3.41 (.59) ^a	3.50 (.65)	3.46 (.62)
친형제자매	3.44 (.67)	3.53 (.67) ^b	3.34 (.74) ^a	3.39 (.66) ^{ab}	3.52 (.61) ^b	3.48 (.66)	3.42 (.68)
조부모	3.47 (.69)	3.70 (.59) ^b	3.50 (.63) ^{ab}	3.39 (.76) ^{ab}	3.29 (.75) ^a	3.60 (.60)	3.39 (.73)
삼촌	3.08 (.76)	3.46 (.67) ^d	3.15 (.75) ^c	2.95 (.74) ^b	2.76 (.73) ^a	3.27 (.73)	2.97 (.76)
사촌	3.00 (.76)	3.29 (.78) ^c	3.05 (.77) ^b	2.89 (.77) ^{ab}	2.75 (.64) ^a	3.22 (.72)	2.86 (.76)
기타친척	2.78 (.80)	3.19 (.84) ^c	2.81 (.78) ^b	2.65 (.77) ^{ab}	2.47 (.64) ^a	2.98 (.80)	2.66 (.77)
친구	3.37 (.67)	3.26 (.79) ^a	3.36 (.69) ^{ab}	3.48 (.60) ^b	3.40 (.57) ^{ab}	3.40 (.70)	3.36 (.65)
선후배	2.66 (.76)	2.61 (.87) ^a	2.61 (.77) ^a	2.59 (.80) ^a	2.82 (.60) ^b	2.68 (.78)	2.65 (.76)
학교동창	2.83 (.73)	3.01 (.80) ^b	2.81 (.78) ^a	2.77 (.73) ^a	2.75 (.57) ^a	2.92 (.75)	2.78 (.71)
담임선생님	3.24 (.69)	3.62 (.65) ^c	3.17 (.73) ^b	3.28 (.63) ^b	2.92 (.56) ^a	3.27 (.71)	3.21 (.68)
아는 이웃	2.44 (.76)	2.65 (.81) ^b	2.46 (.79) ^a	2.33 (.72) ^a	2.32 (.66) ^a	2.54 (.82)	2.38 (.71)
교육자	2.67 (.80)	2.89 (.96) ^b	2.70 (.80) ^{ab}	2.50 (.75) ^a	2.57 (.66) ^a	2.69 (.84)	2.65 (.78)
공무원	2.54 (.92)	3.05 (.98) ^c	2.63 (.87) ^b	2.31 (.87) ^a	2.16 (.74) ^a	2.56 (.95)	2.53 (.91)
기업가	2.10 (.87)	2.47 (.98) ^c	2.19 (.89) ^b	1.87 (.79) ^a	1.86 (.69) ^a	2.19 (.90)	2.05 (.85)
정치가	2.05 (1.01)	2.83 (1.04) ^c	2.10 (.97) ^b	1.75 (.87) ^a	1.53 (.69) ^a	2.17 (1.03)	1.97 (1.00)

초 3.00 중 2.52 고 2.59 대 2.51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경우는 매우 미세하게 여자가 더 높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기에서는 남자가 확실히 여자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대학생 시기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중 고등학생 시기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학원에 대한 신뢰가 더 높으나, 대학생이 되면 여자가 더 높음으로써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학교수준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11에서 가정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들에서 매우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표 12에서 하위집단별 평균을 보면 모든 하위변인들에서 초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으며 점차 상급학교로 감에 따라 평균이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학교수준별로 볼 때 초등학교일수록 사회의 구성 집단들에 대한 신뢰가 높고, 연령이 증가하면 이러한 신뢰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에 대해서만 $p < .05$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그 외의 모든 하위변인들에서는 전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p < .05$). 표 12에서 성별 대기업에 대한 신뢰의 평균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

표 11. 학교수준별 성별 기관에 대한 신뢰의식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df	MS	F
가정	주효과 학교수준 (1)	3	.37	1.66
	성별 (2)	1	.59	2.69
	상호작용 (1)×(2)	3	.15	.66
학교	주효과 학교수준 (1)	3	10.90	22.53 ***
	성별 (2)	1	.80	1.66
	상호작용 (1)×(2)	3	.42	.86
학원	주효과 학교수준 (1)	3	11.44	17.75 ***
	성별 (2)	1	.42	.66
	상호작용 (1)×(2)	3	2.10	3.26 *
경찰서	주효과 학교수준 (1)	3	30.89	47.82 ***
	성별 (2)	1	.07	.11
	상호작용 (1)×(2)	3	.15	.23
법조계	주효과 학교수준 (1)	3	27.53	38.07 ***
	성별 (2)	1	.10	.14
	상호작용 (1)×(2)	3	.11	.16
언론사	주효과 학교수준 (1)	3	29.04	42.86 ***
	성별 (2)	1	.81	1.19
	상호작용 (1)×(2)	3	.04	.06
공공기관	주효과 학교수준 (1)	3	8.82	13.25 ***
	성별 (2)	1	.00	.00
	상호작용 (1)×(2)	3	.12	.18
노동조합	주효과 학교수준 (1)	3	6.62	10.59 ***
	성별 (2)	1	.04	.00
	상호작용 (1)×(2)	3	.33	.52
대기업	주효과 학교수준 (1)	3	12.81	18.78 ***
	성별 (2)	1	3.10	4.55 *
	상호작용 (1)×(2)	3	.30	.44
정당	주효과 학교수준 (1)	3	31.01	45.13 ***
	성별 (2)	1	.99	1.45
	상호작용 (1)×(2)	3	.78	1.14
시민단체	주효과 학교수준 (1)	3	4.49	6.65 ***
	성별 (2)	1	1.80	2.66
	상호작용 (1)×(2)	3	.45	.67

* $p < .05$, *** $p < .001$

표 12. 학교수준별 성별 기관에 대한 신뢰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변인	전 체	초 중 고 대				남 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가정	3.82 (.47)	3.89 (.43)	3.80 (.48)	3.78 (.53)	3.83 (.44)	3.86 (.44)	3.80 (.48)
학교	3.14 (.71)	3.41 (.71) ^c	3.15 (.73) ^b	3.14 (.72) ^b	2.88 (.61) ^a	3.19 (.74)	3.11 (.70)
학원	2.67 (.82)	2.98 (.87) ^b	2.63 (.85) ^a	2.62 (.85) ^a	2.45 (.63) ^a	2.71 (.86)	2.64 (.80)
경찰서	2.76 (.86)	3.24 (.81) ^d	2.85 (.85) ^c	2.59 (.87) ^b	2.37 (.67) ^a	2.80 (.89)	2.74 (.84)
법조계	2.58 (.90)	3.04 (.93) ^c	2.63 (.91) ^b	2.45 (.87) ^b	2.19 (.66) ^a	2.63 (.92)	2.54 (.88)
언론사	2.38 (.87)	2.84 (.92) ^c	2.49 (.88) ^b	2.17 (.82) ^a	2.00 (.64) ^a	2.46 (.90)	2.32 (.86)
공공기관	2.57 (.83)	2.77 (.93) ^d	2.67 (.82) ^{bc}	2.53 (.83) ^b	2.31 (.66) ^a	2.60 (.86)	2.56 (.80)
노동조합	2.48 (.80)	2.67 (.89) ^c	2.55 (.82) ^{bc}	2.43 (.79) ^{ab}	2.27 (.64) ^a	2.50 (.86)	2.47 (.75)
대기업	2.21 (.85)	2.56 (.93) ^c	2.25 (.84) ^b	2.01 (.83) ^a	2.00 (.69) ^a	2.31 (.91)	2.14 (.80)
정당	2.04 (.89)	2.50 (.94) ^d	2.19 (.86) ^c	1.84 (.83) ^b	1.62 (.66) ^a	2.13 (.93)	1.99 (.86)
시민단체	2.74 (.83)	2.83 (.94) ^b	2.83 (.81) ^b	2.75 (.84) ^b	2.53 (.68) ^a	2.70 (.87)	2.76 (.80)

학생이 여학생보다는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변인들은 성별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2에서 전체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가정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학교 경찰서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낮은 평균은 정당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기업의 평균이 낮았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어떤 집단보다도 가정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정당에 대한 신뢰는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집단별 일반적 신뢰의식의 차이

청소년 집단별 특정한 사람에 대한 신뢰의식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일반 타인에 대한 신뢰의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Yamagishi (1998)가 제작한 신뢰 변인에서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가 표 13이다. 두 하위변인 중에서 일반적 신뢰에 대해서는 학교수준별 주효과가 $p < .05$ 수준에서 있었으며, 성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표 14에서 학교수준별 평균을 보면, 고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학생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타인 일반에 대한 신뢰는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높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13에서 하위변인 조심성의 경우를 보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타인과 세상에 대해 조심하는 불신의 마음은 학교수준별 성별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 집단별 사회적 지원의 차이

청소년기에 받는 사회적 지원의 차이를 학

표 13. 학교수준별 성별 기관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식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df	MS	F
일반적 신뢰	주효과 학교수준 (1)	3	1.50	5.15 **
	성별(2)	1	.01	.03
	상호작용 (1)×(2)	3	.37	1.28
조심성	주효과 학교수준 (1)	3	.18	.61
	성별(2)	1	.36	1.20
	상호작용 (1)×(2)	3	.52	1.72

** $p < .01$

표 14. 학교수준별 성별 기관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구분	전 체	초 중 고 대					남	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일반 신뢰	일반신뢰	2.64 (.54)	2.59 (.63) ^a	2.58 (.55) ^a	2.75 (.50) ^b	2.65 (.47) ^{ab}	2.61 (.57)	2.65 (.53)	
	조심성	2.76 (.55)	2.74 (.61)	2.80 (.54)	2.75 (.52)	2.74 (.53)	2.78 (.59)	2.75 (.53)	

교수준별 성별로 이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15이다. 하위변인별 결과를 보면 부모 지원 경우에 학교수준별 주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다($p < .05$). 상호작용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각 하위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남자 경우 초 3.79 중 3.52 고 3.54 대 3.25이고, 여자 경우는 초 3.75 중 3.46 고 3.30 대 3.31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평균이 더 높으나 거의 같은 수준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남자들의 평균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가, 대학생 시기에는 오히려 여자가 매우 근소하나 남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기에는 거의 성별 차이가 없다가 고등학생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현저하게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

로 지각하고, 대학생 시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여학생들이 약간 더 높았다.

표 16에서 학교수준별 부모 지원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생이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어릴수록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에서 교사의 지원도 부모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수준별 주효과는 $p < .001$ 수준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고, 성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도 있었다($p < .05$). 교사 지원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하위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남자는 초등학생 3.41 중학생 3.03 고등학생 3.45 대학생 2.83이었으며, 여자는 초등학생 3.48 중학생 3.00 고등학

표 15. 학교수준별 성별 사회적 지원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df	MS	F
부모의 지원	주효과 학교수준 (1)	3	9.25	39.09 ***
	성별(2)	1	1.05	4.43 *
	상호작용 (1)×(2)	3	.63	2.64 *
교사의 지원	주효과 학교수준 (1)	3	17.24	55.36 ***
	성별(2)	1	.88	2.84 *
	상호작용 (1)×(2)	3	1.05	3.38 *
친구의 지원	주효과 학교수준 (1)	3	7.69	23.08 ***
	성별(2)	1	3.05	9.16 **
	상호작용 (1)×(2)	3	.91	2.74 *

* $p < .05$, ** $p < .01$, *** $p < .001$

생 3.16 대학생 2.81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생 및 대학생 시기에는 성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교 시기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교사의 사회적 지원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다.

표 16에서 학교수준별 교사 지원의 평균을 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 중학생, 대학생 순서로서 대학생이 가장 낮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시기에 교사의 사회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기에 입시를 앞두고 교사의 지원을 많이 받으며, 대학생이 되면 교수의 사회적 지원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받았다. 성별 평

균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남학생이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더욱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에서 친구의 지원 경우는 학교수준별 주효과가 $p < .001$ 수준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고, 성별 주효과 ($p < .01$)와 상호작용효과 ($p < .05$)도 있었다. 친구의 지원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하위집단별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남자 경우에 초등학교 2.71 중학생 3.00 고등학교 3.26 대학생 3.25로 평균이 나타났으며, 여자 경우에 초등학교 3.00 중학생 3.15 고등학교 3.29 대학생 3.26으로 확인되었

표 16. 학교수준별 성별 사회적 지원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구분	전체	초 중 고 대				남 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사회적 지원	부모	3.47 (.52)	3.77 (.34) ^c	3.49 (.52) ^b	3.36 (.51) ^a	3.29 (.55) ^a	3.53 (.50)	3.44 (.53)
	교사	3.11 (.61)	3.45 (.53) ^d	3.01 (.60) ^b	3.23 (.58) ^c	2.82 (.51) ^a	3.14 (.63)	3.10 (.59)
	친구	3.12 (.60)	2.88 (.73) ^a	3.08 (.59) ^b	3.28 (.51) ^c	3.25 (.47) ^c	3.01 (.64)	3.18 (.57)

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시기에는 성별 차이가 남학생과의 차이가 좁혀지다가, 고등학교 시 가장 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의 사회적 지원을 훨씬 많이 받고, 중학생 시기에도 기부터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됨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여학생이 더 많은 친구 지원을 받으나 친구 지원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6에 제

표 17. 학교수준별 성별 자기효능감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df	MS	F
개인효능감	자기조절 학습	주효과 학교수준(1)	3	4.67	15.08 ***
		성별(2)	1	.70	2.27
		상호작용 (1)×(2)	3	.82	2.66 *
	어려움 극복 효능감	주효과 학교수준(1)	3	5.32	14.91 ***
		성별(2)	1	18.23	51.09 ***
		상호작용 (1)×(2)	3	.29	.81
	사회성 효능감	주효과 학교수준(1)	3	3.65	10.01 ***
		성별(2)	1	3.55	9.73 **
		상호작용 (1)×(2)	3	.89	2.45
	관계 효능감	주효과 학교수준(1)	3	5.39	25.19 ***
		성별(2)	1	.78	3.65
		상호작용 (1)×(2)	3	.21	.97
집단효능감	부모자녀 관계 효능감	주효과 학교수준(1)	3	9.93	33.85 ***
		성별(2)	1	.24	.83
		상호작용 (1)×(2)	3	.61	2.08
	가족역할 수행 효능감	주효과 학교수준(1)	3	8.30	31.83 ***
		성별(2)	1	.12	.44
		상호작용 (1)×(2)	3	.61	2.34
	학생역할 수행 효능감	주효과 학교수준(1)	3	7.95	36.62 ***
		성별(2)	1	.16	.73
		상호작용 (1)×(2)	3	.41	1.88
	가족집단 성취 효능감	주효과 학교수준(1)	3	6.56	25.87 ***
		성별(2)	1	.01	.04
		상호작용 (1)×(2)	3	.15	.60
	학급집단 성취 능감	주효과 학교수준(1)	3	4.85	16.67 ***
		성별(2)	1	.01	.02
		상호작용 (1)×(2)	3	.28	.96

* $p < .05$, ** $p < .01$, *** $p < .001$

시되어 있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초등학교 평균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중학생이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의 지원과 달리 친구 지원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이 높았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청소년 집단별 자기효능감의 차이

청소년 집단별로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가 표 17이다. 자기효능감을 개인효능감과 집단효능감으로 분류하였을 때, 개인효능감에 포함된 다섯 개의 하위변인들 모두에서 학교수준별 주효과는 $p < .001$ 수준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 주효과는 어려움극복효능감에서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와 사회성 효능감에서 $p < .01$ 수준의 차이가 있었고, 다른 하위변인들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상호작용효과는 자기

조절학습효능감에서만 있었다 ($p < .05$).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상호작용을 보면, 남자는 초 3.10 중 2.86 고 2.94 대 2.81이었고 여자는 초 3.11 중 2.70 고 2.78 대 2.85로서 초등학교와 대학생 시기에는 성별 차이가 없으나, 중 고등학생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낮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수준별 평균을 표 18에서 살펴보면 개인효능감의 다섯 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의 개인효능감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고, 성장함에 따라 효능감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가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사회성효능감, 관계효능감, 부모자녀관계효능감이 모두 가장 높았다.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어려움극복효능감과 사회성효능감의 성별 평균을 표 18에서 확인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어려움극복효능감이나 사회성효능감

표 18. 학교수준별 성별 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효능감	집단	전 체	초 중 고 대				남 여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개 인 효 능 감	자기조절학습	2.88 (.57)	3.10 (.59) ^b	2.77 (.58) ^a	2.82 (.57) ^a	2.87 (.50) ^a	2.92 (.59)	2.86 (.56)
	어려움극복	2.89 (.63)	3.15 (.63) ^b	2.83 (.62) ^a	2.77 (.61) ^a	2.81 (.59) ^a	3.07 (.56)	2.77 (.64)
	사회성	2.94 (.62)	3.13 (.62) ^c	2.89 (.65) ^{ab}	2.98 (.58) ^{bc}	2.81 (.57) ^a	3.02 (.58)	2.90 (.64)
	관계	3.19 (.48)	3.40 (.45) ^c	3.15 (.50) ^b	3.20 (.46) ^b	3.02 (.44) ^a	3.23 (.48)	3.16 (.48)
	부모자녀관계	3.09 (.57)	3.41 (.52) ^b	3.01 (.59) ^a	3.00 (.56) ^a	2.95 (.50) ^a	3.12 (.58)	3.07 (.57)
집 단 효 능 감	가족역할수행	3.18 (.54)	3.48 (.49) ^b	3.09 (.56) ^a	3.11 (.54) ^a	3.07 (.45) ^a	3.21 (.54)	3.16 (.53)
	학생역할수행	3.13 (.49)	3.41 (.46) ^b	3.02 (.51) ^a	3.12 (.47) ^a	3.01 (.41) ^a	3.12 (.51)	3.14 (.48)
	가족집단성취	3.20 (.52)	3.45 (.47) ^c	3.14 (.54) ^{ab}	3.19 (.55) ^b	3.05 (.44) ^a	3.21 (.53)	3.19 (.52)
	학급집단성취	3.00 (.55)	3.20 (.60) ^b	2.87 (.54) ^a	3.01 (.56) ^{ab}	2.93 (.45) ^a	2.99 (.60)	3.00 (.52)

이 모두 더 높았다.

한편 집단효능감의 차이 분석 결과를 표 17에서, 학교수준별로 네 개의 하위변인 모두 $p < .001$ 수준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성별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 18에서 학교수준별 집단효능감 하위변인에서의 평균을 보면, 모두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집단에 비해 가족역할수행효능감, 학생역할수행효능감, 가족집단성취효능감, 학급집단성취효능감이 모두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집단별 생활만족도의 차이

청소년 집단별로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가 표 19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수준별 주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그리고 성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상호작용을 검토하기 위해 하위집단

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남자 경우 초등학생 3.49 중학생 3.22 고등학생 3.26 대학생 2.93이었으며, 여자는 초등학생 3.50 중학생 3.05 고등학생 3.05 대학생 2.89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시기에는 생활만족도에서 동일하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기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생활만족도가 높고, 대학생 시기에는 여자가 약간 더 높아지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표 20에서 학교수준별 하위집단의 평균을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중 고등학생이 동일한 수준이며, 대학생은 현저하게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 학생들이 더욱 생활만족도가 높고, 성별로는 남자가 더욱 생활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결과들로부터

표 19. 학교수준별 성별 생활만족도의 차이 이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df	MS	F
생활만족도	주효과 학교수준 (1)	3	12.91	70.66 ***
	성별 (2)	1	2.20	12.06 *
	상호작용 (1)×(2)	3	.53	2.92 *

* $p < .05$, ** $p < .01$, *** $p < .001$

표 20. 학교수준별 성별 생활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전 체	초	중	고	대	남	여
변인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생활만족도	3.15 (.48)	3.49 (.40) ^c	3.13 (.45) ^b	3.10 (.48) ^b	2.90 (.39) ^a	3.23 (.46)	3.10 (.48)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첫째 청소년기 인간관계와 관련된 신뢰의식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착적인 특징, 둘째 청소년 집단별 인간관계와 관련된 신뢰의식의 차이, 셋째 한국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에 대해 청소년 집단별 지각된 신뢰 수준의 차이이다. 넷째, 청소년 집단별 신뢰의식의 차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의 차이와 관련된 특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섯째 한국 청소년 신뢰의식 형성을 탐색하기 위한 후속연구과제들을 검토해 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의식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이 연구의 맺음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청소년 신뢰의식 형성의 토착적 특징 : 부모의 희생, 교사에 대한 존경, 친구의 공감

인간관계와 관련된 신뢰의식의 형성과정에서 한국 청소년 특유의 토착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희생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존경, 그리고 친구가 공감해주는 정서적 교류가 각각의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부모의 희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연구들(박영신, 김의철, 2004c, 2005a; Lee, Kim, & Park, 2005)에서 확인되어 왔다. 이와 같이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신뢰의식 형성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일반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있는 일탈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2004b; Tak,

Park & Kim, 2006). 또한 토착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한 박영신, 김의철과 한기혜(200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이 부모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이유나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로서 부모의 희생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함병미, 박영신과 김의철(2003)의 연구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가족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부모와 관계지각에서 얼마나 중요한 변인인지를 보여준다.

부모에 대한 신뢰의식에서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신뢰의식에서도 독특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예컨대 교사에 대한 존경이 교사에 대한 신뢰를 구성하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였다. 교사와 학생 관계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의 기반에는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한편 수평적 인간관계에서는 이성적인 이유보다는 감성적인 이유가 더욱 신뢰 형성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청소년 친구관계에서 공감과 같은 정서적 교류를 상징하는 변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과도 관련된다. 선행연구(Lee, Park & Kim, 2004a)에서도 신뢰 형성에서 인간관계 마다 독특한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신뢰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그 기저에 작용하고 있는 토착심리를 통찰하는 것이 필요하다(Park, Kim & Lee, 2004). 특별히 한국 문화 중에서도 관계문화의 틀(Park & Kim, 2006a)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토착심리들이 개인주의 문화에서와는 질적으로 다른 가

정들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람 신뢰의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청소년 집단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서도 매우 토착적인 특징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부하와의 관계에서조차도 업무처리능력보다는 관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라든가 상호 배려 성실함 가족과 같음 등의 변인들이 신뢰 형성에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2005; 김명언 이영석, 2000). 그러므로 다양한 집단들의 관계 맥락에서의 토착적 신뢰의식들을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청소년 집단별 신뢰의식의 차이 : 부모와 교사에 대한 신뢰 감소와 친구에 대한 신뢰 증가

청소년 집단별로 인간관계와 관련된 신뢰의식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고 중학교 이후부터 낮아졌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고 중학교 시기에 낮아지는 점에서는 부모에 대한 신뢰와 동일하였으나,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가 대학생 시기에는 다시 감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친구에 대한 신뢰는 초등학교 이후에 성장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따라서 친구에 대한 신뢰의 패턴은 부모에 대한 신뢰의 패턴과 반대 경향을 보였다.

어린 학생일수록 부모를 신뢰하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더욱 신뢰하는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있다. 김의철과 박영신(2004a)에 의하면, 중 고등학생이 부모에 대한 신뢰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중학생이 교사를 더욱 신뢰하고 고등

학생은 친구를 더욱 신뢰하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이 괴로울 때 의논 대상으로 부모보다 친구가 훨씬 더 많이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도 청소년기 또래집단의 중요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 후기로 가면서 점차 부모나 교사보다 친구나 또래집단에 대한 신뢰와 교류 및 의존의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기 또래집단 관계의 중요성 증가라는 측면 외에도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뢰의식에 대한 이해를 인간관계 맥락에서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달리 말하면 Yamagishi(1998)가 제안한 일반적 신뢰의 측정만으로는 한국 청소년의 토착적 신뢰의식이 정확히 규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Yamagishi의 일반적 신뢰 질문지로 측정하였을 때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훨씬 높은 신뢰수준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 맥락에서의 신뢰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일반적 신뢰와는 반대의 패턴, 즉 초등학교생이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고 중 고 대학생은 초등학교생보다 현저히 부모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았다.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신뢰가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거듭한다는 사실도, Yamagishi의 일반적 신뢰 측정도구로 밝혀진 결과와는 질적으로 다른 패턴이다.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교사에 대한 신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고등학교 시기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사에 대한 신뢰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이 처해 있는 학교, 사회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을 배제하면 이러한 신뢰

의식의 변화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과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가치와 상황에 처해 있는 서양이나 외국의 청소년들이 교사에 대해 갖는 신뢰가, 이 연구에서와 같은 변화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 개인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인류 보편의 법칙같은 틀보다는, 각 문화와 상황과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변화 형성이 나가는 심리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더불어 각 문화 내에서의 토착심리와 토착환경에 대한 고려는 개인의 심리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 줄 것이다.

청소년의 한국사회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신뢰 수준: 가족에 대한 높은 신뢰와 정치가에 대해 극단적으로 낮은 신뢰

한국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으며, 정당이나 정치가에 대한 신뢰는 극단적으로 낮았다. 분석 결과에 토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국 청소년들의 가정 및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강도는 매우 높다는 점이다. 11개의 조직에 대한 신뢰를 질문한 이 연구에서, 가정을 제외하고는 10개 조직 모두에 대해 초 중 고 대학생의 청소년 집단 간에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단지 가정에 대한 신뢰에서만 전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모두 가장 높은 '매우 신뢰한다.'는 4점 척도 상에서 4점에 가까운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소년 하위집단에서 가정에 대해 극단적으로 높은 신뢰를 보이

고 있으며, 그 값은 나머지 10개 집단의 어떤 신뢰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6명의 주위사람에 대한 신뢰를 분석한 결과도 부모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거의 4점에 가까운 극단적인 값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그 다음으로 자녀 및 조부모에 대한 신뢰, 형제자매에 대한 신뢰, 삼촌, 사촌, 기타 친척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가족이나 친척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에게 가족이나 가정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신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부모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는 결과는 초 중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6)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Fukuyama(1995)도 한국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혈연 외적인 관계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족주의 문화 특성을 지닌 사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조직이나 조직 내 구성원에 대한 신뢰 정도의 차이를 여러 국가들 사이에 비교한 Helgesen과 Kim(200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서양 사람들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가족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일차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가족을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한국인의 토착심리라고 하기 보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태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Helgesen과 Kim(2002)의 연구에서 국가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결과는, 서양의 경우에 동료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반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매우 낮고, 또한 정당이나 언론 법조계 공무원 등 사회의 공공기관들

에 대해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신뢰수준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Park & Kim, 2006b)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조직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을 검토해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정당이나 대기업 등에 대한 불신의 폭이 매우 깊었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 노동조합, 공공기관, 법조계 등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균적인 신뢰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주는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됨에 따라 가정을 제외한 10개 조직 기관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낮아지거나 불신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의 대표적인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 신뢰를 잃고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그러한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불신과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하였으며, 기업가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인상을 청소년들이 갖고 있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신뢰 수준도 낮았다.

이러한 불신의 경향은 대학생에서 성인으로 됨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 박영신, 윤영진과 김의철(2006)이 한국사회와 정치에 대한 인식 및 신뢰를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사회에 대하여 성인들이 청소년보다 더욱 부정적 인식(불안, 부정부패, 보수성, 연고주의, 불평등)을 하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도 성인이 청소년보다 더 부정적(이기적, 감정적, 체면, 배타적 우월주의)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 대통령, 공무원에 대해 성인이 더욱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에서는 국회, 정당, 법조계, 노동조합, 경찰서, 교육기관을 성인이 청소년보다 더 불신하고 있었다.

한국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정당이나 정치인을 극단적으로 신뢰하지 않는(김의철, 2002; 박영신, 윤영진, 김의철, 2006;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3, 2004; 윤영진, 박영신, 김의철, 2005; Kim, Helgesen & Ahn, 2002)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을 시사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김묘성, 김의철과 박영신(200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통령 투표기준에 있어 청소년과 성인 모두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다음으로 리더십 외적조건(외모, 집안배경, 정당)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덕성과 리더십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데 있어서 세대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은 정치인들이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봄으로써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신뢰의 이유로 한국인들에게 강력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표집 대상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졌다. 부모들은 자녀의 능력보다 성실성을 더욱 신뢰(박영신, 김의철, 2004b) 하였으며, 직장 상사도 부하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신뢰(Park, Kim, & Lee, 2004) 하였다.

청소년 집단별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

이 연구에서 청소년 집단별 신뢰의식 차이 외에도 관련 변인들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초 중 고 대학생의 사회적 지원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기 동안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하강하고, 이와 반대로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상승하였다.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중학생에서 감소하나, 고등학생 시기에 다시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대학생 시기에 감소하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지각은 부모에 대한 신뢰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교사에 대한 신뢰와, 친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친구에 대한 신뢰와 동일한 유형의 변화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각각의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의 변화 양상이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에 대한 변화 유형과 일치하는 결과를 통해, 각각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이 그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수준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들에서도 시사되고 있다. Lee, Kim과 Park(2006a, 2006b)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은 신뢰 및 생활만족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나 신뢰가 증가하였다. 김난옥, 박영신과 김의철(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친구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가장 의미있는 독립변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청소년 집단별로 사회적 지원만이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도 신뢰의식의 차이와 거의 일치하였다. 즉 초등학생 시기에는 자기효능감이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나, 중학생 이후에 점차 하강하였다. 김난옥, 박영신과 김의철(2005)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신뢰는 관계효능감에 의해, 교사에

대한 신뢰는 자기조절학습동기 효능감에 의해, 친구에 대한 신뢰는 관계 효능감에 의해 의미 있게 설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효능감의 증가는 신뢰의 증가와 관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뢰가 사회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 그리고 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변인들과 어떠한 유기적 관련을 맺으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신뢰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관련된 풍부한 해석과 논의의 지평을 넓혀 줄 것으로 본다.

한국 청소년 신뢰의식의 형성 및 변화와 관련된 후속연구과제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 중 고 대학생 집단 각각을 같은 시점에서 표집하여 횡단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네 집단 사이의 차이를 통해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차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횡단분석이 갖는 약점으로서, 이 연구에서 밝혀진 청소년 초기에서 중기 및 후기까지 신뢰의식의 차이가 과연 개인의 발달적 변화를 대표해 주는 결과인가에 대해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일 집단의 발달적 변화를 추적한 것이 아니고, 이질적인 네 집단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을 거쳐 대학생에 이르는 네 집단 간의 비교 분석 결과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집단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그것

을 발달적 변화라고 보기에 집단 간에 여러 오차변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횡단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들이 종단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지는지 종단적 자료를 통해 재검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단자료 수집 및 분석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므로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 과제 외에 우선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후속연구로,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및 신뢰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볼직하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기 동안에 부모나 교사의 사회적 지원은 감소하고 친구의 사회적 지원은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패턴으로 부모나 교사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고 친구에 대한 신뢰는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원과 신뢰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기효능감과 신뢰의 관계도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개인효능감이든 집단효능감이든 모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인간관계 신뢰의 정도도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 및 신뢰가 서로 연결되는 경로 모형을 구축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높은 사회적 지원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신뢰의식을 향상시키며, 또한 사회적 지원 자체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의 흐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신뢰의식 형성에 대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결과는 변인간에 단순 상관관계와 청소년 집단간 차이

분석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청소년기 동안 신뢰의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표집대상은 초 중 고 대학교 학생들이었다. 한편 탁수연, 박영신과 김의철(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 중 고등학생들과 보호관찰 청소년은 일반적인 신뢰의식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자매, 친한 친구, 학교 선생님에 대한 신뢰의식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보호관찰 청소년이 더욱 낮은 신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일반적인 청소년 집단만이 아니라 보호관찰 청소년 등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확대하여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직업 유형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도 신뢰에 대한 분석(김명연, 2005; 김명연 이영석, 2000; 김의철, 박영신, 2003; Park & Kim, 2006a)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교사, 친구와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였다. 동일한 관계 구조 내에서의 신뢰라 하더라도 신뢰의식의 주체가 누구이나에 따라 작용하는 대표적인 심리특성은 매우 다르다. 즉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신뢰에 있어,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신뢰하는 이유와 다른 면들이 많이 있다(Lee, Park & Kim, 2004b).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시각에 토대하여 부모와 교사 및 친구에 대한 신뢰의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면,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시각에서 자녀에 대한 신뢰, 교사의 시각에서 학생에 대한 신뢰의 측면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시사된다.

토착적 신뢰의식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

이 연구에서 가장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결과는, 청소년기 동안에 Yamagishi (1998)에 의해 제안된 일반적 신뢰의식 수준의 변화 패턴이,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 수준의 변화 패턴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들의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초등학교나 중학생 시기에는 비슷하다가 고등학교 시기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보면, 예컨대 부모에 대한 신뢰는 이와 거의 반대 패턴, 즉 초등학교 시기에 부모를 가장 신뢰하다가 중학생부터 신뢰수준이 의외롭게 낮아지고, 그 이후는 낮아진 수준을 유지하였다. 교사에 대한 신뢰 수준은 질적으로 매우 다른 패턴을 보였는데, 부모에 대한 신뢰처럼 초등학교 시기에 높고 중학생에서 낮아지지만 고등학교 때 다시 높아졌다가 대학생 시기에는 현저하게 낮아짐으로써, 일반적 신뢰의 변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의미있는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의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대한 신뢰의식도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대학생으로 성장할수록 점차 하강하는 패턴들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Yamagishi가 제안한 일반적 신뢰가 측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신뢰의식이,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맥락에서나 기관에 대한 한국인의 토착적인 신뢰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번의 연구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앞으로 다양한 연구설계로 재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희생이라든가 교사의 지도조언과 같은 신뢰를 구성하는 토착적인 구인들에 대한 심도있는

관심이 요구된다. 요약하면 밝혀진 이러한 결과는 신뢰의식의 문화적 배경(김의철, 박영신, 2001)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 신뢰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 개인의 건강하고 전인격적인 발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집단 및 사회 단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즉 청소년기에 형성된 신뢰의식이 성인기 신뢰 형성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의식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회 조직의 집단적 건강수준이 영향을 받는다. 만약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고, 생산적인 시너지를 갖기가 어렵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청소년들이 정치가나 공무원 기업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매우 낮으며, 더군다나 점차 성장하면서 불신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정당이나 언론사 대기업 법조계 등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더욱 낮아졌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해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신뢰의식을 형성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일은, 기성세대의 몫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토착적인 신뢰의식에 대한 탐구 결과들은 단순히 연구 결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한국 문화의 창조를 위한 지혜의 샘으로 활용되면 더욱 가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신뢰 문화는 여러 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를 발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뢰형성과정에서 가족관계의 확대와 외집단에 대한 개방적 태도, 둘째 합리와 정서의 조화 및 공과 사의 분별, 셋째 신뢰의 기준으로서 자기조절과 더불어 환경 통제 및 객

관적인 능력의 균형이 필요(박영신, 김의철, 2005b)하다.

그리고 단기적 측면만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한국인의 토착적인 신뢰의식을 분석함으로써, 현대인들의 불안하고 고독한 삶에 이러한 장기적 신뢰의식의 역동이 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Park & Kim, 2006a)을 모색해 봄직하다. 예컨대 2003년 폭염으로 사망한 파리 지역 독거노인 약 400명의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임시 냉동 창고에 보관되는 프랑스 노인의 시체들(박영신, 김의철, 2004)을 상기해 보자.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한국의 자녀들은 성묘 등의 방식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를 계속 추모하면서 장기적으로 부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이러한 지속적인 신뢰는 이해관계나 합리성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에 기반을 둔 유대관계이며, 자녀의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고 성취 추구의 심리적 기반이 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되는 한국인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의식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토착 심리가,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며 자기가 쌓아가는 편협된 성 속에서 고독을 자초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 긍정적 해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킨 실타래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자세로, 한국인의 토착적 신뢰의식의 심리적 메카니즘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가 세계 정신문화의 방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4). 직장인의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2004년도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1~152.
- 권혁호, 박영신, 김의철 (2005). 직장상사, 동료, 부하직원에 대한 신뢰: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5년도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1~192.
- 김난옥, 박영신, 김의철 (2005). 중학생의 부모, 교사, 친구에 대한 신뢰의식 연구.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2005년도 연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5~216.
- 김명언 (2005). 조직 신뢰의 유용성에 대한 불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57~67.
- 김명언, 이영석 (2000). 한국 기업 조직에서 부하가 상사에 대해 갖는 신뢰와 불신의 기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99~120.
- 김묘성,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정치성향과 대통령 투표기준의 차이: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15(1), 247~265.
- 김의철 (2002). Democracy, leadership, and political culture in Korea: With specific focus on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37~170.
- 김의철, 박영신 (1997). 한국 청소년 문화: 연구방법.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 *한국 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

- 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김의철, 박영신 (2001). 서장: 신뢰의 문화적 배경: 동서양의 비교.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역.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문화심리학 총서 4. pp. 1~61. 서울: 교육과학사. Yamagishi, T. *Trust and social intelligence: The evolutionary game of mind and society*.
- 김의철, 박영신 (2003). Managemen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cultur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role of trust and leadership. 한국기업경영학회 2003년도 기업경영대상 시상식 및 하계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1~63.
- 김의철, 박영신 (2004a).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 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박영신 (2004b).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103~129.
- 김의철, 박영신 (2005). Trust, relationship, and civil society in Scandinavia and East Asia: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33~161.
- 김의철, 박영신, 이상미 (2001). 신뢰의 구조 동서양의 비교. 문화심리학 총서 3.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2004c).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신뢰의식: 청소년과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5~136.
- 박영신, 김의철 (2005a).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영신, 김의철 (2005b).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91~119.
- 박영신, 김의철 (2005c). 청소년용/성인용 신뢰 질문지.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청소년과 학부모의 신뢰의식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인천카운슬러협회 자료집. 3~32.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박영신, 윤영진, 김의철 (2006). 한국사회와 정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 세대의 심리차이 분석.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15(2), 257~270.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3).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정치효능감, 신뢰의식과 정치참여행동 차이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9~170.

- 윤영진,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한국 사람과 공공기관 및 국가에 대한 신뢰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7~158
- 윤영진, 박영신, 김의철 (2005). 한국 사회와 정치에 대한 인식과 신뢰. 한국사회문제 심리학회 2005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200.
-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김양하 (2005). 한국문화에서의 대인관계 신뢰와 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20.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 보호관찰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5~166.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4).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신뢰, 자기효능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2004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3~154.
- 한성열 (2005). 한국 사회의 신뢰와 불신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및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163~174.
- 함병미, 박영신, 김의철. (2003). 부모와 초등학교 자녀가 지각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가족의 역할: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1~192.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paperbacks.
- Helgesen, G. & Kim, U. (2002). *Good government: Nordic and East Asian perspectives*. Copenhagen: NIAS Press.
- Kim, U., Helgesen, & Ahn, B. M. (2002). Democracy, trust, and political efficacy: Comparative analysis of Danish and Korean political cultur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1(2), 317-352.
- Kim, U., & Park, Y. S. (2006). The scientific foundation of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The transactional approach. In, U. Kim, K. S. Yang, & K. K. Hwang (Eds.),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pp. 3-25). New York: Springer.
- Lee, S. M., Park, Y. S., & Kim U. (2002). Perception of parent-child trust and distrust in Korea: Indigenous analysi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parents. Paper presented at the 44th Annual Conference of Japanese Association of Educational Psychology, October, 12-14, Kumamoto University, Kumamoto, Japan.
- Lee, S. M., Park, Y. S., & Kim, U. (2004a). Trust of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An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mong Korean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Lee, S. M., Park, Y. S., & Kim, U. (2004b). Formation and perception of parent-child trust and distrust: The cas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August 8-13, Beijing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Beijing, China.
- Lee, S. M., Kim, U., & Park, Y. S. (2005). The basis of trust and distrust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n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6th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pril 2-5, Wellington, New Zealand.
- Lee, S. M., Kim, U., & Park, Y. S. (2006a). Factors influenc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trust,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indigenous, and psych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53th conference of Japanese Group Dynamics Association, May 27-28, University of Musashino, Japan.
- Lee, S. M., Kim, U., & Park, Y. S. (2006b).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relational efficacy, life-satisfaction and trust: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June 23-25, California, USA.
- Park, Y. S., & Kim, U. (2006a). Comparative Analysis of Trust in Individualistic and Relational Cultures: Short-term Versus Long-term Perspectives.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53th conference of Japanese Group Dynamics Association, May 27-28, University of Musashino, Japan.
- Park, Y. S., & Kim, U. (2006b). Trust of institutions and people in Korea: Psychological, indigenous, and cultur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June 23-25, California, USA.
- Park, Y. S., Kim, U., & Lee, S. M. (2004). The basis and evolution of trust in relational cultures: Psychological, indigenous, and cultural analysis.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August 8-13, Beijing, China.
- Tak, S. Y., Park, Y. S., & Kim, U. (2006). Comparative analysis of moral disengagement, trust and self-efficacy among adolescents on probation and high school stud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June 23-25, California, USA.
- Yamagishi, T. (山岸俊男, 1998). 信賴の構造: ころと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1 차 원고 접수일 : 2006. 6. 17

최종 원고 접수일 : 2006. 7. 18

Factor influencing trust among Korean adolesc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relational trust

Young-shin Park

Dep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Uichol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and change of relational trust among Korean adolescents using indigenous psychological perspective. Among adolescents, we examine the basis of trust of their parents, friends and teacher and also their trust in people and institutions. A total of 968 adolescents (227 elementary, 284 middle school, 213 high school, and 244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that contains the Relational Trust Scale developed by Kim and Park (2004a), Generalized Trust Scale developed by Yamagishi (1998) and a scale measuring trust of people and institutions (Kim, Helgesen & Ahn, 2002).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trust their parents due to their sacrifice, followed by their counsel and advice, dependability, consanguinity and respects. They trust their teachers due to their counsel and advice, followed by respect, sacrifice, and mutual trust. They trust their friends due to their advice, followed by empathy, mutual trust, dependability, friendship and sacrifice. Second, trust of their parents are highest amo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lowest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lower for older age groups. The trust in teachers are highest amo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lowest among the middle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In contrast, trust in friends increase from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older age groups. Third, among trust in people and institutions, they are highest for parents and family and lowest for politicians and political parties. Except for trust in friends, trust of significant others and institutions (family, teachers, neighbors, company executives and politicians) is highest among the youngest age group and it decreases with older age group. Fourth, Yamagishi's generalized trust was highest among the older age groups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The patterns of results for relational trust and generalized trust is different and it points to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rust from the indigenous psychological perspective.

key words : trust among adolescents, relational trust, indigenous psychology, trust of parents, trust of teachers, trust of friends, sacrifice, respect, empathy

다음 문항은 중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문지의 분석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아래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안에 쓰기 바랍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님은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다. 2. 부모님과 나는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이므로 의심이 없다. 3.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4. 부모님이 존경스럽다. 5. 부모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6. 부모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7. 부모님은 나를 뒷바라지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신다. 8. 부모님과 나는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 있다. 9.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10. 우리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분이다. 11.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움을 주신다. 12. 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신다. 13. 부모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참고 일하신다. 14. 나를 낳아 준 부모님을 당연히 신뢰한다. 15. 부모님은 나의 정신적인 지주이다. 16. 부모님은 모범적인 생활을 하신다. 17. 부모님은 나를 믿고 격려해 주신다. 18. 부모님은 항상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 부모님은 가족을 위해 항상 애쓰신다. 20.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다. 21. 나를 아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으로 든든하다. 22. 부모님으로부터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 23. 나를 믿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하고 감싸 주신다. 24. 부모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 주신다. 25. 부모님은 헌신적으로 가족을 보살피신다. 26. 같은 혈육인 부모님을 무조건 믿는다. 27. 언제나 부모님이 의지가 된다. 28. 부모님은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신다. 29. 항상 나를 믿고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30. 나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 주신다. 31. 부모님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고생스러워도 참는다. 32. 같은 핏줄로 이어진 친부모는 절대적이다. 33. 부모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믿음직한 분이다. 34. 부모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35. 부모님은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36. 부모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충고를 해 주신다. |
|--|--|

아래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선생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선생님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안에 쓰기 바랍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다. 2. 스승과 제자관계이므로 의심이 없다. 3.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4. 우리 선생님이 존경스럽다. 5. 선생님은 나를 믿어 주신다. 6. 선생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7. 선생님은 우리를 지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신다. 8.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 있다. 9. 선생님은 항상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10. 우리 선생님은 자랑스러운 분이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애쓰신다. 20.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선생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 21. 나를 아껴 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참으로 든든하다. 22. 선생님으로부터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 23. 나를 믿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하고 감싸 주신다. 24. 선생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신다. 25. 선생님은 헌신적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 26. 교육자인 선생님을 무조건 믿는다. 27. 언제나 선생님이 의지가 된다. 28. 선생님은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신다. |
|---|---|

- | | |
|-----------------------------------|---------------------------------|
| 11. 선생님은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움을 주신다. | 29. 항상 나를 믿고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
| 12. 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신다. | 30. 나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 주신다. |
| 13. 선생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위해 참고 일하신다. | 31. 선생님은 우리를 돌보기 위해 고생스러워도 참는다. |
| 14. 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당연히 신뢰한다. | 32. 배우는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의심한 적이 없다. |
| 15. 선생님은 나의 정신적인 지주이다. | 33. 선생님은 내가 어려울때 도와주는 믿음직한 분이다 |
| 16. 선생님은 모범적인 생활을 하신다. | 34. 우리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
| 17. 선생님은 나를 믿고 격려해 주신다. | 35. 선생님은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
| 18. 선생님은 항상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 | 36. 선생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충고를 해 주신다. |

아래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친한 친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안에 쓰기 바랍니다

- | 전혀 아니다 | 약간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2 | 3 | 4 |
-
- | | |
|-------------------------------------|----------------------------------|
| 1. 친한 친구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 19. 친한 친구는 나를 위해 항상 애쓴다 |
| 2. 친한 친구와 나 사이에는 의심이 없다. | 20. 서로에 대한 믿음은 가까운 친구관계의 기본이다 |
| 3. 친한 친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 21. 나를 아껴주는 친한 친구가 있어 참으로 든든하다 |
| 4. 어른들과는 통하지 않아도 친한 친구와는 공감할 수 있다. | 22. 친한 친구와 마음이 잘 통한다. |
| 5. 친한 친구는 나를 믿어 준다. | 23. 친한 친구는 나를 믿으므로 잘못을 용서해 준다 |
| 6. 친한 친구는 나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 24. 친한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 준다. |
| 7. 친한 친구는 나를 도와주느라 매우 고생한다. | 25. 친한 친구는 헌신적으로 나를 보살펴 준다. |
| 8.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믿을 수 있다. | 26. 내가 좋아하는 친구이므로 무조건 믿는다. |
| 9.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친한 친구이다. | 27. 친한 친구가 믿음직스럽다 |
| 10. 친한 친구는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마음이 맞다. | 28. 친한 친구는 나와 생각이 비슷해서 이해가 잘 된다. |
| 11. 친한 친구는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알아준다. | 29. 친한 친구는 항상 나를 믿고 편안하게 대해 준다. |
| 12. 친한 친구는 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충고해 준다. | 30. 친한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조언을 듣는다. |
| 13. 친한 친구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위해 참고 도와준다. | 31. 친한 친구는 나를 위해 고생스러워도 참는다 |
| 14. 친한 친구관계라면 당연히 신뢰해야 한다. | 32. 친한 친구 사이에 믿는 것은 당연하다. |
| 15. 부모에게 말 못하는 고민도 친한 친구에게 털어 놓는다. | 33. 내가 어려울 때 친구가 도와주므로 의지가 된다 |
| 16. 친한 친구끼리 서로의 사정을 잘 안다. | 34. 나는 친구와 어려움이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 |
| 17. 친한 친구는 나를 믿고 격려해 준다. | 35. 친구는 나를 믿어주므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
| 18.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친한 친구는 적절한 도움을 준다. | 36. 친한 친구는 나에게 꼭 필요한 충고를 해 준다. |

아래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안에 쓰기 바랍니다.

- | | | | |
|-------------------|------------|----------------|----------------------|
| 1. 부모 | 5. 삼촌 | 9. 선후배 | 13. 교육자(교사 교수 등 |
| 2. 자녀(자녀가 있다고 가정) | 6. 사촌 형제자매 | 10. 학교 동창 | 14. 공무원 (경찰, 판사 등) |
| 3. 친 형제자매 | 7. 기타 친척 | 11. 담임교사/ 지도교수 | 15. 기업가 (사장, 회장 등) |
| 4. 할아버지, 할머니 | 8. 친구 | 12. 이웃에 아는 사람 | 16. 정치가(대통령, 국회의원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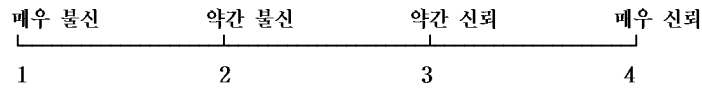
아래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집단이나 조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안에 쓰기 바랍니다.

- | | | | |
|------------|----------|-----------|------------|
| 1. 우리 가정 | 6. 경찰서 | 11. 대기업 | 16. 일본 사회 |
| 2. 집안 친척모임 | 7. 법조계 | 12. 정당 | 17. 독일 사회 |
| 3. 친구모임 | 8. 언론사 | 13. 시민단체 | 18. 북한 사회 |
| 4. 학교 | 9. 공공기관 | 14. 한국 사회 | 19. 중국 사회 |
| 5. 학원 | 10. 노동조합 | 15. 미국 사회 | 20. 소련 사회 |
| | | | 21. 이라크 사회 |

아래 문항은 평소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안에 쓰기 바랍니다.



- | | |
|---|---------------------------------------|
| 1.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 6. 이 사회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한다. |
| 2. 대부분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다. | 7.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 |
| 3.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 8.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한다. |
| 4.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 9. 이 사회에는 위선자가 많다. |
| 5.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 | 10. 사람들은 겉으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
| 11. 모든 사람에게 악한 면이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 |

아래 문항은 평소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로부터 얼마나 정서적이거나 정보적인 도움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안에 쓰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도움>

- | | |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 7. 진학,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 |
|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신다. |
|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 10.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신다.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 | 11.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신다.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신다. | 12. 적절한 충고를 해 주신다. |

<친구의 도움>

- | | |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준다. | 7.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준다.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준다. |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 준다. |
| 3. 따뜻하게 대해 준다. |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 준다. |
| 4. 고민을 들어 준다. | 10.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준다. | 11.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준다.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준다. | 12. 적절한 충고를 해 준다. |

<선생님의 도움>

- | | |
|--------------------------|---------------------------|
|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 7. 진학,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
| 2.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 . |
|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 |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신다 . |
|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 | 10.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신다. |
|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 | 11.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신다. |
|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신다 . | 12. 적절한 충고를 해 주신다. |

아래 문항은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안에 쓰기 바랍니다.

- | | | | |
|--------|--------|--------|--------|
| 전혀 아니다 | 약간 아니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 | 2 | 3 | 4 |
-
- | | | |
|----------------|----------------|-------------------------|
| 1. 가정생활 | 5. 부모와의 인간관계 | 9. 친한 친구와의 인간관계 |
| 2.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 | 6. 형제자매와의 인간관계 | 10. 학교 친구들의 생활태도 |
| 3. 가족간의 의사소통 | 7. 학교생활 | 11. 담임선생님(지도교수님)과의 인간관계 |
| 4. 가족들의 건강 | 8. 본인의 학업성적 | 12. 학교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태도 |

아래 문항은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어떤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안에 쓰기 바랍니다.

- | | | | |
|-----------|-----------|-----------|-----------|
| 전혀 잘할수 없다 | 약간 잘할수 없다 | 약간 잘할수 있다 | 매우 잘할수 있다 |
| 1 | 2 | 3 | 4 |
-
1. 당신은 정해진 시간 내에 숙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까 ?
 2.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좌절하지 않고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습니까 ?
 3. 당신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분위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까 ?
 4. 당신은 친구들과 진실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5. 당신의 고민이나 걱정을 부모님과 얼마나 잘 의논할 수 있습니까 ?
 6. 당신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에 대해 얼마나 잘 열중할 수 있습니까 ?
 7. 일이 엉망이 되고 있을 때에도, 당신은 얼마나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까 ?
 8. 당신은 식사하는 분위기를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
 9. 당신은 선후배와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10. 당신은 부모님의 기대에 얼마나 잘 일치할 수 있습니까 ?
 11. 당신은 공부하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분발시킬 수 있습니까 ?
 12.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도전할 수 있습니까 ?
 13. 당신은 모임의 어색한 분위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
 14. 당신은 형제자매와의 우애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15. 당신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
 16. 다른 흥미있는 일들이 있어도, 당신은 얼마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
 17. 당신은 매우 심한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
 18. 사회생활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

19. 당신은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20.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
21. 당신은 학습계획을 얼마나 적절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
22. 곤란에 부딪쳐도 당신은 기가 꺾이지 않고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23. 당신은 놀러 갔을 때 분위기를 얼마나 좋게 할 수 있습니까?
24. 당신은 친척들과 원만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25. 당신은 부모님과 마음을 터놓고 얼마나 잘 대화할 수 있습니까 ?
26. 공부할 때 산만하지 않도록, 당신은 주위환경을 얼마나 잘 정돈할 수 있습니까 ?
27.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때, 당신은 좌절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
28. 당신은 모임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
29. 당신은 선생님과 바람직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30. 부모님이 당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
31. 당신은 부모님과 가까운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

아래 문항은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해당하는 숫자를 각 문항 앞의 () 안에 쓰기 바랍니다.

전혀 잘할수 없다 약간 잘할수 없다 약간 잘할수 있다 매우 잘할수 있다

1 2 3 4

1. 당신은 가정에서 아들/딸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2. 학생으로서 당신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3. 모범적인 가정이 되는데 당신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
4. 우리 반의 성적이 높아지는데 당신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습니까 ?
5.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당신은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
6. 당신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습니까 ?
7.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습니까 ?
8. 우리 반의 학습태도가 좋아지도록 당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9. 당신은 자녀로서 부모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할 수 있습니까 ?
10. 학생으로서 당신은 미래를 위한 진로준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11. 가족들이 만족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당신은 얼마나 협조할 수 있습니까 ?
12.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 돕도록 당신은 분위기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습니까?
13. 당신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
14. 당신은 선생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다룰 수 있습니까?
15. 집안 분위기가 편할 수 있도록 당신은 얼마나 잘 양보할 수 있습니까 ?
16. 우리 반이 모범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당신은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17. 자녀로서 당신은 부모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까 ?
18. 학생으로서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19. 가족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신은 얼마나 잘 격려할 수 있습니까 ?
20. 우리 반 분위기가 좋도록 당신은 얼마나 협조할 수 있습니까?
21. 부모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자기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
22. 학생으로서 당신은 학교에서 맡은 일을 얼마나 충실히 할 수 있습니까 ?
23. 가족들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당신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24. 우리 반 친구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도록 당신이 얼마나 도울 수 있습니까?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 앞에 **V** 표 하기 바랍니다.

1. 성별 : () 남 () 여
2. 연령 : (만 세)
3. 본인이 평가하는 평균 학업성적 : () 하 () 중 () 상
4. 다른 학생과 비교한 평균 학업성적 : () 하 () 중 () 상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 () 초 () 중 () 고 () 대
6. 대학생 경우 전공 계열 : () 사범대 () 문과대 () 법학대 () 경상대 () 사회과학대
() 이과대 () 공과대 () 가정대 () 의과대 () 예체능대

=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K C I